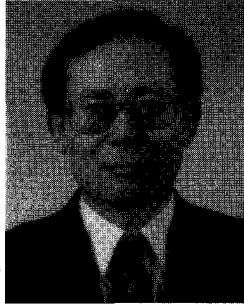




포장재질 검사·표시 환경정책과 문제점 및 대응책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전 무 이사 정 규 성

1. 서 언

자연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정책이 범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비교적 먼저 인식한 선진국들은 '90년대 초부터 정부의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산업정책을 펼쳐왔으며, 해가 갈수록 그 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국제 환경회의를 개최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책을 위한 협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 환경오염원에 대한 배출억제, 국가간 반입규제, 산업폐기물 처리 등 산업활동과 환경문제,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이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Point of issue)이 되었다.

이제, 환경오염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오염원에 대한 원인부터 처리까지 해결책이 광범위하게 다뤄져야 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에서부터 각 산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 발생원(Origin)은 다양하다. 예컨대, 국내의 일일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14만 톤(98년), 생활쓰레기가 12만5천톤(98년), 기타쓰레기가 5천톤으로 총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27만 톤에 이르고 있다. 특히, 포장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95년 한 해 동안 560만 톤이던 것이 2001년에는 8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기물 배출량의 억제도 대단히 중요하나, 제품의 제조에서 처리까지 환경친화적인 연구와 관리체제가 총체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규제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는 일련의 정책이 필요하다.

2. 포장산업과 자연환경

2.1 환경유해 포장규제는 세계적인현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용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포장용기이다.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각양각색의 포장용기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수량이 적지않다.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결국 다양한 종류의 포장제품 개발, 포장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포장기술의 발전은 문명의 혜택인 동시에 환경문제 유발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도 같이 포장산업의 발전과 함께 포장폐기물 배출량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자연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포장폐기물 폐기문제는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EU국가 등 서방 선진국가들의 이에 대한 규제조치는 해가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중 환경친화포장재 사용과 환경유해포장재의 사용규제문제가 제기하게 되었다. 유해 포장폐기물의 폐기문제로 인해 당사국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간, 대륙간 반입 규제 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자국내에서도 분리회수, 재활용 목표율 설정, 사용제한감량, 포장재 재질에 대한 분류표시제도등을 도입 실시하는 등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제정책이 강화일로에 있는 것이다.

2.2 환경부 환경유해포장재 재질검사 사용제한

이와 같이 각국들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가 관련법률을 제·개정하고, 산업 폐기물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금년 2월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키고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환경유해포장의 사용제한 비율을 높였으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규제하였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히 개선토록 법률을 강화했으며, 음식점, 백화점, 목욕탕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도 규제토록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포장원자재의 경우, EU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안전성, 위생성, 무게 및 부피의 최소화, 유독·유해물질의 최소화, 재생·재사용 분리회수에 따른 적합성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포장재는 회원국 영내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성분 등 인체에 유해한 포장재 중금속 함유 성분의 허용기준을 점차 낮추고 있다.

2.3 환경에 대한 전국민적의식이 중요

포장재의 재활용문제가 중요함은 설명할 나위가 없다. 국내 업종별 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율('97기준)을 보면 폐지가 57%, 폐유리가 67%, 고철이 4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포장폐기물은 연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재정비, 쓰레기종량제 실시, 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정부의 관리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 상당한 실효를 견우고 있으나, 아직도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폐기물문제는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그 원인이 있고, 모든 경제 주체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로서, 기본원칙의 확립과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져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 및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돼 있는 만큼 효과적인 폐기물 환경정책이 이뤄져야 할 실정이며, 전국민의 환경에 대한 재인식과 전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폐기물처리문제에 있어서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 지가상승, 물류비용 증가, 처리비용 상승 등은 원활한 폐기물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유해 원자재를 대체할 만한 무해 원자재 개발 및 사용, 포장폐기물 자원화 등 포장산업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환경친화적인 포장산업 육성방안과 대책

3.1 환경부 포장재질등 검사제도의 지원과제

환경부가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키고 폐기물의 회수·처리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처리비용 예치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향후 계획적이고 연속적이며, 포장업체와의 상관관계를 얼마나 적절히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금번의 법령개정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회수의 규제와, 포장재질의 표시검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포장의 재사용, 포장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과 자원절약을 기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포장 감량화와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 면제, 포상제도 실시, 감량화 관련 시설개전자금 우선 지원 등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부담금 및 예치금 부과에 대해서도 업체의 성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기초

시설 설치 등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포장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하여 신속하게 폐기용도와 재활용 용도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해야 하며, 가정 및 사무실의 분리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2 포장산업계는 환경친화포장재 개발주력을

포장업계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포장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위한 노력이다.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 저렴하면서 재활용이 쉬운 제품, 포장폐기물 회수가 쉬운 제품, 자연환경에 무해한 제품 등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사용이 쉬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원가가 저렴하면서도 복합재질에서 단일재질로, 재활용이 안되는 소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다중포장에서 최소한의 포장으로, 과대포장에서 적정포장으로의 제품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복합재질의 사용을 규제하여 분리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종이에 비닐코팅이 되어있거나 종이와 플라스틱을 함께 사용하여 제

조한 포장제품은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활용이 안되는 제품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재활용 여부가 쉽지 않은 포장제품의 생산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반면, 리필(Refill)제품의 생산이 확대되고 품목도 추가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리필제품 이용이 환경보호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리필제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자율적인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3.3 소비자는 환경친화 포장문화 의식 가져야

포장산업 발전과 환경보호의 병행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경제적인 포장문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포장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물론,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포장 감량화 및 재활용도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을 고려하는 상품 및 구매 행태, 철저한 분리수거 등 소비자의 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확실한 광고효과를 원하십니까?

국내 유일 지류포장 전문지 『**골板紙包裝 · 物流**』

『**골板紙包裝 · 物流**』誌 배포처

- 포장 · 관련정부기관
- 골판지포장 제조업체
- 골판지포장 사용업체
- 골판지 기계 제작업체
- 접합용 접착제 제조업체
- 물류System 자동창고 · 팰리타이저 제작업체
- 컨테이너 · 특장차 제작업체
- 골판지포장 기계 무역업체
- 포장 · 물류 관련단체
-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 Corn Starch접착제업체
- 골판지 잉크 · 인판제조 업체
- 자동결속기 · PP밴드 제조업체
- 팰리트 제작업체
- 골판지원지 무역업체
- 골판지포장 기타 부자제 업체